

“부처님 가르침 통해 ‘삶의 지킴’ 배우고 싶다”

# 실용불서 다양화 ‘독자 요구’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삶의 지킴을 얻고자 하는 불자들의 욕구를 반영한 보다 다양한 실용불서가 요구되고 있다.

교육, 환경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불교적 가르침과 접목시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보다 상세하고 다양한 세분화 된 실용불서들이 출간되어야 한다는 것.

《부처님과 여성들》(불교의 여성론) 《부처님과 여인들》 등 여성분야, 《선체조 108》(몸에 좋은 부처님의학) 《불교의학》(참선과 건강호흡) 등 건강, 《과학과 불교》(과학과 불교의 실재인식) 《불교상심심리학》 등 인접학문분야, 《불가의 상징의례》, 《간병

요양수업기도법》(생활 속의 기도법) 등이 불자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불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수준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녀교육, 청년기의 방황, 사랑과 결혼, 부부생활, 부모역할, 상담, 노사관계 등 계층별, 세대별, 직

부부 가족 친구사이에 친밀함을 키우는 법(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영역비결》, 열린교회 부흥하는 교회회를 위한 《예배기획 행사기획》, 지혜로운 자녀교육법(자식의 장래는 부모의 교육에 달려있다), 《경건한 남성 따뜻한 아버지》 등 제목만 봐도 한눈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책들이 출간돼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실용불서 출간 활성화에 대해 교계 출판사들은 한결같이 “실생활과 밀접한 실용불서 출판을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열악한 교계경도와 필자선정의 문제 등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답했다.

특히 불교의 현대화 사회화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판사 개인의 힘만으로는 다양한 실용불서의 출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교계출판관계자들의 반응이다.

팔만사천 부처님의 법문속에는 생활 속의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가르침이 담겨있다. 그러나 그것을 현대화하고 사회화 하지 않는다면 변화하는 사회에 대처할 수 없다. 따라서 불자들이 생활현장에서 몸으로 체험하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풀어 쓴 실용불서 활성화라는 방안을 통해 불자들의 불서읽기 저변확대는 물론 보다 다양화된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불교포교의 초석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은자 기자



◇실용불서의 활발한 출반은 미래사회를 대비한 불교포교의 초석이다. 사진은 지금까지 나온 불교관련 실용불서들.

## 기존책들 여성·건강·경제 등 한정 자녀교육·노사관계 등 세분화 필요

불사의 이론과 실제, 《직장인의 신앙생활》(동양사상과 환경문제) 등이 있지만 아직 단편적이거나 초보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올봄 출간된 《부처에게서 배우는 경영의 지혜》가 경제경영의 문제를 부처님의 무궁무진한 가르침으로 풀어내 불자기업인들과 경영학도들에게 꾸준히 읽히고 있다. 기도법에 대한 친절한 안내서로 《관

종별로 세분화된 구체적인 실용불서가 출간돼야 한다.

타종교의 경우 실생활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세분화 된 실용서적들이 다수 선보이고 있다. 자녀교육시리즈 《내 아이, 어떻게 키울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 위한 지침서 《사랑과 결혼에 대한 137가지 조언》, 행복한 남편 행복한 아내를 위한 부부생활지침서 《아내가 바라는 남편,

## “보살사상으로 사회정화 하자”

### 월주스님 화강논총 ‘...보살정로’ 출간

수행의 터전을 이 사회대중과 불이(不二)한 곳에 두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등 많은 단체의 책임을 맡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국민 의식을 전환시키는 수연불사(水緣佛事)를 실천하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장 태공 월주스님이 화강기념 논총집 《보살사상·보살정로》를 출간했다.

이번 기념논총집은 지난해 맞은 화강을 계기로 스님이 걸어온 자취를 돌아보고 세간에 스님의 가르침을 회향하고자 하는 문도들과 불자들이 뜻을 모아 출간한 것.

지난천 불질문명의 숭배와 개인주의의 팽배로 황폐해지는 오늘날의 문제를 보살사상으로 해결하려는 원력이 담겨있다.

제1권 논총 《보살사상(菩薩思想)》에는 이재창박사(동국대 명예교수)의 ‘신라시대 사원의 성정에 대한 고찰’을 필두

로 국내외 석학 26명의 논문을 수록했다. 특히 《회암경의 보살도에 대한 고찰》 《대반야경에 나타난 보살의 의미》 《법화경의 보살사상》 《대승보살도의 기본으로서의 반야바라밀》 등 다수의 경전사상에 나타난 보살사상을 살펴보고 보살사상의 현대적 의미를 재조명해 한국불교의 사회운동 또한 보살사상으로 회향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제2권 문집 《보살정로(菩薩正路)》는 월주스님의 법문과 각종 행사나 각 일간지·월간지 등에 실렸던 연설·대담 등을 부분별로 정리했다.

또한 부록 ‘깨달음의 사회와 운동’에서는 지금까지 추진돼 온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에 대한 현황과 성과, 문제점 등을 점검 정리해 놓았다. 한편 월주스님의 화강기념논총집 출간기념법회는 7일 오후 6시 사부대중 1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봉행됐다.

###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9시10분 집기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행태	일 타	효림
2	사십구재만 무엇인가	효림	행원
3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림
4	불교인문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5	한국사찰음식	김연서	우리출판사
6	금강경대강좌	이재열	여시아문
7	49재 공덕과 의미	편집부	이바지
8	인연(작은책)	서정주	민족사
9	괴안으로 이끄는 사자후	탄허	교림
10	살아있는 불교 살아있는 그리스도	틱나한	한민

구입문의: (02)737-0695

## 도선국사 진면목 ‘한눈에’

불교전기문화연구 고승총서 ‘도선국사’ 발간

신라말 후삼국의 변혁기를 살다간 풍수지리설의 비조이며, 옥룡산문을 열어 ‘말없는 가운데 살해진다’는 무심설 무심법의 총지로 동리산 선공을 이은 승승도선국사(道洗國師 827~898)에 대한 연구를 집대성한 본격 연구서 《도선국사》(불교영성 刊)가 출간됐다.



선씨가 도선의 사상을 집중조명해 도선국사의 위상을 정립했다. 제3, 4장에서는 최창조, 최병현, 서문길교수 등이 도선의 비보사상(裨補思想)과 생애에 대해 논했다. 제5장 도선관련 유적유물에서는 옥룡사 및 도선관련 폐사지에 대한 글을 실었으며, 제6장에서는 도선사상이 어떻게 변질되어 왔는가를 사단법인 한배달 학술위원 박현씨가 논했다. 제8장은 도선과 관련된 각종 전설을 재해석해 실었으며, 특히 제7, 9장은 도선 관련 문헌을 한문원전과 함께 번역해 실어 도선연구의 기초적 자료를 총망라했다. 또한 부록편에서는 도선관계 연구문헌 목록을 실었다.

불교전기문화연구(소장 최석환)가 역대고승총서 여섯 번째 권으로 펴낸 이 책은 풍수지리설의 비조라 하여 불교교단에서는 외면돼 온 도선국사의 진면목을 밝혀 선사로서의 면모를 뚜렷히 하고 선승으로 복원하기 위해 지난 3년간 자료추적등 일련의 작업을 거쳤다. 따라서 이 책은 풍수지리의 대가 아닌 선승 도선에 일관된 초점을 맞춰 동리산문의 하나인 옥룡산문을 일으킨 도선에 대해 구체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특히 도선 관련 연구자들이 총동원되었을 뿐 아니라 도선 창건 사찰 100여개를 현장답사를 통해 발로 쓴 것에 더욱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제1, 2장에서는 도선관련 유적지 현장 기행과 김지경 박사와의 박의

## 어린이 불교교양지 ‘연꽃’ 새 단장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한 어린이 종합불교교양지 증보판 《연꽃》(발행인 조정관) 10월호가 선보였다.

《동쪽나라》 폐간이후 조계종 후원으로 사단법인 불국토 대한불교어린이회(이하 도자연)에서 제작된 《연꽃》은 이번호에서 요일마다 주제가 있는 설법을 담은 편집으로 어린이불자들이 하루하루 부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마음으로 읽는 만화, 영어로 듣는 말씀, 컴퓨터의 세계 등 어린이의 관심사를 반영한 다양한 읽을 거리를 준비했다. 2천5백원.

## 마음의 눈으로 본 미영순박사 여행기 “새벽산사에 가보세요”

“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을 통해 내 존재의 의미를 찾는 것이 바로 여행의 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짚을 찾아 절과 얽힌 여러인간의 이야기들을 나만의 느낌과 감성으로 풀어내면서 대자연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나의 모습을 그려넣는 작업으로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행하면서 틈틈이 일기 형식으로 남겨놓은 글과 그림들을 모은 것이다. 경기도 2학년때 실명이라는 엄청난 시련과 맞닥뜨린 후 30년 동안 시련과 맞서 싸워 마침내 승리한 미박사는 아직도 쌍안경을 통해서만 겨우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이다. 그래서인지 미박사가 바라보는 세상은 보통사람들의 시선과는 사뭇다르다. 미박사는 이 책에서 사찰의 풍경사건대신 자신의 쌍안경으로 본 세상을 한쪽의 그림으로 정성스럽게 그려 넣어 여는 여행기는 다른 맛을 느끼게 하고, 때론 날카로운 시각으로 새삼 우리를 반성케 하기도 한다. <은>

현재 중국 후퉁강대학 정치학과 객원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미영순박사(50)는 자신이 펴낸 사찰여행기 《새벽산사에 가보세요》(시공사 刊)를 이렇게 설명한다. 이 책은 미박사가 지난 91년부터 전국 각지의 사찰 30여곳을

## ‘문화유산’ 코너 마련 책방 여시아문, 10월 특선

책방 여시아문이 ‘민족의 얼 문화유산 알고 찾고 가꾸자’는 주제로 10월 한달동안 문화유산 특별코너를 마련한다. 이번 행사에는 ‘우리집 알고 찾기’를 위한 《절을 찾아서》(봉은사지) 등 사찰사지관련서와 ‘불교미술 알기’를 도와주는 《실크로드 미술》(한

## 출판가소식

국의 불교미술) 등 미술관련서, ‘우리문화 알기’를 주도해 온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3》(우리문화 이웃문화) 등 불교문화유산 전반에 걸친 관련서들이 전시 판매된다. (02)737-0695

## ‘혼자서 기도하는 법’ 법현스님, 무료배포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 회장 법현스님

님이 《혼자서 기도하는 법(관음기도)》을 펴냈다. ‘기도란 어떻게 해야 하나?’는 평소 불자들의 의문을 풀어주기 위해 발간된 이 책은 때와 장소, 상황을 가리지 않고 마음으로, 말로, 몸으로 또 마음과 입으로, 3업부성(三業投誠)으로 기도할 것을 강조한다. 스님은 이번 관음기도편에 이어 앞으로地藏기도, 약사기도, 신중기도 등에 대한 책을 계속 펴낼 계획이다. 이 책은 무료로 배포된다. (02)914-3558

10월 10일

# 해인사 미술관

귀의 삼보하옵고...

수확과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단풍으로 곱게 물든 가야산에서 그동안의 지극한 정성과 동참으로 향후 우리문화와 교육의 요람이 될 「해인사 미술관」을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로 대덕스님과 사부대중을 모시고 개관기념 「큰스님 특별전」을 개최하오니 무루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간망하옵니다.

- 미술관 구조 ●
- 1층: 도예교실
- 2층: 한식당
- 미술관 ●
- 초계대광대탈 전시실 ●

- 개관기념 큰스님특별전 ●
- 선서화및서찰 등70여점

구하  
경봉  
청담  
월하  
석주  
일타  
...

찾아오시는 길  
전 해인초등학교  
해인사 미술관  
해인사 주류소

구산  
중광  
환경  
송월  
수안  
...

해인사 미술관 ● 주소: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 전화: (0599)31-8778 · 31-9846 ● 관장: 性空 합장